

“우수 유학생 유치...한·중 대학 실질적 교류 확대”

전남대·호남대 등 6개 대학 공동 유학박람회 개최
중국 청도 내 광주 인지도·유학생 유치 기반 강화

전남대학교 등 광주지역 6개 대학이 연합해 중국 청도에서 유학박람회를 열고, 우수 유학생 유치와 한·중 대학 간 실질적 교류 확대에 나섰다.

12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RISE사업단 광주글로벌허브센터는 한·중 대학의 학생 교류와 중국 산둥성 주요 대학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8~9일 중국 청도(칭다오)에서 광주지역 6개 대학이 참여하는 ‘중국 유학박람회’를 개최했다.

행사 첫날은 1992년 설립된 청도시 최초의 사립학교인 청도빈해학원에서 진행했다.

이날 유학설명회에는 산둥성 지역 대학 국제교류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대학들은 대학별 홍보설명회를 통해 전공 특성, 유학 프로그램, 교류 가능성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자들과 네트워킹을 이어가며, 향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펼쳤다.

두 번째 날에는 상해합작조직경무대학에서 ‘청도에서의 만남, 한·중 교육의 융합: 고등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탐색’이라는 주제로 광주지역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등 6개 대학 유학설명회를 개최했다.

각 대학은 중국어 발표와 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유학생 유치 정책과 대학의 특성화 전략, 장학제도 등을 소개하며 광주의 고등교육 인프라와 교육경쟁력을 홍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 대학 국제교류 및 중문망 산하 유학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주지역 대학에 대한 높은



전남대 RISE사업단 광주글로벌허브센터는 한·중 대학의 학생 교류와 중국 산둥성 주요 대학 간 협력을 위해 지난 8~9일 중국 청도(칭다오)에서 광주지역 6개 대학이 참여하는 ‘중국 유학박람회’를 개최했다.

관심을 확인했다.

또 설명회 이후 운영된 상담 부스에서는 학생교류 프로그램 및 입학 전형, 유학절차 안내 등 실질적 상담이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향후 중국 지역 유학생 발

굴 및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광주글로벌허브센터 관계자는 “광주 지역 대학이 최초로 해외에서 공동으로 유학박람회를 개최해 중국 내 광주의 인

지도를 높이고, 우수 유학생 유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글로벌허브센터는 교육부

RISE 글로벌 오픈캠퍼스 조성사업의 하나로 지역 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12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를 열고 도내 돌봄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전남사회서비스원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서 노고 격려

전남도사회서비스원(노인맞춤돌봄과 역지원기관)은 12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2025년 노인돌봄 종사자 건강증진대회’를 열고 도내 돌봄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온(ON)기 전남·온(ON) 통합돌봄·마음(ON)’을 주제로, 돌봄 종사자들이 서로

의 경험을 나누고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과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 종사자 54명에 대한 표창식이 진행됐다.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 곁을 지켜온 돌봄 인력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현구 기자 gnnews1@

서구 혁신 우수사례 ‘천원택시’ 최우수상

경진대회서 부서 추천 정책 공유
100일 만에 400명·1000회 이용

광주 서구가 추진 중인 교통복지 정책인 ‘천원택시’가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구는 최근 ‘2025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올 한 해 각 부서에서 추진한 우수 정책을 공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통과 협력 △서비스 향상 △업무 효율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21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서면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 올랐다.

최우수상에는 돌봄정책과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가 선정됐다. 천원택시는 중증질환자 등이 병원에 방문할 때 택시비 1000원만 부담하면 서구가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시행 이후 100일 만에 400명이 1000회 이용하며 교통복지와 공공의료를 연계한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또 우수상에는 건축과 ‘공공건축 건립사업 표준화 매뉴얼 기획 및 제작’, 복지정책과 ‘서구아너스와 함께하는 복지서비스 재로(0)’, 장려상에는 회계정보과 ‘업무혁신을 위한 생생형 AI 계정 지원’, 주민자치과 ‘천원돌고 피크닉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행정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 서구가 추진 중인 교통복지 정책인 ‘천원택시’가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동구 E.T 야구단-KIA 김석환 선수, 특별한 만남

광주 동구가 발달 장애인 청소년야구팀 ‘E.T(East Tigers) 야구단’에 특별한 만남을 선사했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E.T 야구단’은 KIA타이거즈 김석환 선수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발달장애 청소년 선수들에게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야구를 통한 소통과 포용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석환은 기본기 지도와 시범 훈련을 통해 자신의 노하우를 직접 전달했다.

김석환은 “야구를 사랑하는 모든 장애



인 선수들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

벼 유기농 재배하는 농업인 자신만의 독창적 농법 정립

전남도는 “2025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에 벼를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송효수·김재기·이병연씨를 선정했다.

유기농 명인 제도는 전남도가 농업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 유기농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농업인을 명인으로 지정해 친환경농업 마이스터(현장교수)로 활용하는 제



송효수

김재기

이병연

도다.

고흥 송효수씨는 자연농자재를 활용한 석회유황농법을 개발·이용하고 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현미식초, 카놀리유, 고

삼 삶은물 등을 석회유황과 혼합해 살포하고 있으며, 벼집을 환원하고 녹비자물을 파종한 후 논 깊이갈이를 통해 토양의 지력을 높여 유기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

장흥 김재기씨는 유황쌀 재배농법을 사옹에 65도 온탕소독과 유황 점지로 종자를 관리하며, 육묘 상자에 함미꽃 추출을 살포해 건강한 모를 육성한다.

모내기 시 유황액과 우렁이를 투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자갈요일, 멸구슬 발효액, 함미꽃 추출액을 황토유황과 혼합해 살포함으로써 벼의 생육 안정성과 병해충 저항성을 높이고 있다.

해남 이병연씨는 2016년 일본 벼 품종인 ‘이노찌노이찌’ 라이선스를 취득, 자가 종자를 사용해 재배하고 있다.

개체별 생육공간을 확보하는 소식재배 기술과 주기적으로 물을 채우고 빼주는 교대 간수법을 도입해 뿌리 활착과 토양 호흡을 촉진하고 있으며, 벼집 환원 및 가을갈이를 통해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동시에 유황, 식초 등 천연자재를 이용해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게시판

결론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신희진(논산 참약사대온약국) 군 박승호(아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씨(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 차녀 박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 양=11월 16일 일요일 낮 12시30분, 드래퍼 웨딩을 신관 지젤을 1층(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을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마을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시니어물러내지도사(자격반)=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ონსე (음력 9월 24일)

48년생 난처해질 수 있으나 의연하게 대처
60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라
72년생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도장 찍어라
84년생 대중 잡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96년생 애를 먹겠다

51년생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손해 따른다
63년생 같은 기반에도 실상은 부자
75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계기가 주어질 것
87년생 사로잡는 매력에 현혹되지 말라
99년생 집 밖에서 소득 얻을 때

54년생 지출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 아껴 두라
66년생 남에게 베푸는 오정 따듯하다
78년생 주변에서 협력자가 많이 나타난다
90년생 물라도 덜 일 잃게 되어 걱정

57년생 쇠잔했던 운로가 소생하기 시작
69년생 배우자를 찾지 말 것
81년생 현재 있는 그대로 보아라
93년생 공격하면 재앙 있다

49년생 뜻대로 이뤄지기가 만무하다
61년생 문제없으니 근심하지 말 것
73년생 문서를 취득할 운이 좋다
85년생 소임은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
97년생 혼자 하는 편이 훨씬 편할 것

52년생 신병 조심. 조기검진이 필요
64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참아라
76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88년생 배우자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주의

55년생 겉치는 일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67년생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주시
79년생 임찰이나 경매 참여하라 재수 따를 것
91년생 도움 요청에 지인의 회답이 없을 것

58년생 건강을 늦추지 말라
70년생 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수용
82년생 근심 말라 그것은 해결된다
94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는다

59년생 재물 늘어나고 부귀한 생활 누린다
62년생 무의미 했던 것이 가치를 얻게 된다
74년생 주어진 것을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
86년생 물지 않으니 빨리 바꾸는 게 낫겠다
98년생 협조자 들어온다

53년생 소문만 믿고 얘기하다 다툼 생긴다
65년생 선홍후길하니 집안 평온
77년생 분수대로 언행하면 문제될 일 없다
89년생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 될 것

56년생 관계 떠나서 냉정히 돌아볼 때
68년생 물고기가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
80년생 귀하게 원하는 사업하게 된다
92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자

59년생 정신적 피곤함 주의하라
71년생 꼭 지켜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83년생 작은 성의라도 돌려주라
95년생 책임 완수 다할 때